

11/22/20

설교 제목: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107 편 1-43 절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같이 말할찌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9.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1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16. 저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7.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18.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찌로다
23.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24.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25.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28.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
33.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밭이 되게 하시며
35.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36.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37.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38.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39.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40.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41.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42.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극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맞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연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말을 코 앞에 둔 이 시점까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극성을 부립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식당 네일 가게 세탁소 같은 사람끼리 대면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탱하지 못하고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졸업생들은 취업 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해 주던 지원금도 7월로 끊겨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라는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인해 어지럽습니다.

미디어들은 진보 보수로 나뉘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싱숭생숭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은총)을 깨닫고 감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 길에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자입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한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시입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은 하나님의 헤세드(은총)에 감사하라는 부름이고(1-3 절)

본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네 가지 실례(4-32 절)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묵상이며(33-41 절)

결론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되라는 권면입니다(42-43 절).

시인은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같이 말할찌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는 말로 보아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그 이후의 시기라는 것과 이 시의 대상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후기 세대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속자와 구속함을 받은 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 애굽 바벨론 등 이웃 강대국들에게 포로로 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사실을 듭니다.

본론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네 가지 실례를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미련하여 병든 자, 바다를 향해하는 선원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곧 죽음의 땅 광야에서 길을 잃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면서 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죽음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9.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헤맸던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 15.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 16. 저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 빛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련하여 병든 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 17.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 18.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 19.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 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 21.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찌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자신의 죄로 인해 병든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네 번째 광풍과 파도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는 선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 23.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 24.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 25.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 26.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 27.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 28.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 29.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 30.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 31.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 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

이들 역시 바벨론 포로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들 네 종류의 상황에 처한 자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했던 때에 그리고 비벨론의 포로였다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때 역사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그 엮은 줄을 끊고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었다는 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미련하여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사 고치셨고 항해하는 선원을 위하여는 광풍을 잠재우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고자 했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데 시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찬양의 정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32 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먼저 2 절에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로 시작합니다.

2.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같이 말할지어다

그리고 22 절에서는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로 발전되며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32 절에서는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로 절정에 이릅니다.

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또한 네 가지 실례에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찬송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8 15 21 3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구원 행위에서 두 가지 요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네 가지 실례를 언급한 후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33.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밭이 되게 하시며

35.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염밭으로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거꾸로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 예로 물이 많아 비옥했던 옥토 소돔과 고모라를 염밭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음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 삶의 영역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립니다.

36.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37.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38.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족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39.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40.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41.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거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36 절에서 38 절까지의 축복된 삶은 4-7 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였으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합니다.

또 39 절의 저주의 삶은 34 절에서 말하는 거민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능욕을 당하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41 절에서 말하는 궁핍한 자는 2 절의 여호와의 구속함을 받은 자요 곤경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부르짖었던 자들이요 여호와의 인애와 기이한 일을 체험한 자들 곧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 후기 세대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 사이의 해결되지 않은 긴장에 대해 묵상하게 하여 축복과 저주의 긴장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인은 결론에서 누가 지혜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42.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궁극적으로 지혜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여호와와 그의 언약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찬양이나 기도라기 보다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감사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99%는 자신이 지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은 물론 땅까지 저주를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청했을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낮아짐을 당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축복의 길을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